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9월 20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함춘영 ☎440-1581 • 담당자 심연희 ☎440-15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에서 환자살피는 간호사, 인천 생명사랑활동가로 나선다
-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인천간호사회, 간호사 생명사랑활동가 양성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위해 간호사를 생명사랑활동가로 양성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명사랑활동가는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 신호를 포착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생명사랑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 확대해 생명사랑병원, 생명사랑약국, 생명사랑학원, 종교계 생명사랑활동가 등을 위촉 및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 일선에서 환자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자살고위험군을 살피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인천광역시간호사회(회장 조옥연)는 협약을 체결하고 ▲간호인력의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도움기관 연계 ▲자살예방 정보제공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간호사 생명사랑활동가의 첫 시작은 가천대길병원 소속 간호사를 중심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인천시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가 도움 요청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51.9%)와 병·의원(25.9%)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¹⁾ 간호사는 자살위험자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간호사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살예방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1), 자살 사망자의 정신질환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체계 구축방안 모색 : 인천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2021-242호



2022.9.6. 자살예방의 날 기념 힐링토크콘서트 '내일도 맑음'을 개최하였다.

시민들이 드라마 「내일」의 원작 웹툰 라마 작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 교수, 가수 전은진이 드라마의 다양한 자살 관련 사례들에 대한 대화와 힐링음악을 듣고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다.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 ☎ 1393

정신건강 24시간 상담전화 | ☎ 1577-019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